기능성 샴푸시장“ 급부상"

93년 샴푸 · 린스 시장중 35% 점유 … 세분화추세 뚜렷

샴푸 · 린스시장이 급신장하면서 점점 세분화 · 전문화돼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.
80년대 말까지만 해도 향과 세정력 등만을 강조했던 샴푸 · 린스시장이 90년대들어 간편함을 추구하는 생활패턴과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기 시작했다.
이같은 추세에 따라 등장한 기능성 샴푸는 전체 샴푸시장에서 91년 10%, 92년 20%, 93년 35%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급신장하면서 94년에는 약 50% 정도까지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.
생산실적을 기준으로 샴푸 · 린스시장규모를 보면 93년 1508억8834만원을 생산, 92년 1333억6229만원에 비해 18.5%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.
93년에는 샴푸 1147억원을 생산, 92년(975억원)대비 17.7% 신장한 반면 린스는 361억원을 생산, 92년(359억원)에 비해 0.8% 신장하는데 그쳤다.
이는 93년 럭키 · 애경산업 · 태평양 등 샴푸 · 린스 주요 생산기업들이 샴푸 · 린스겸용의 샴푸를 대량 출시하면서 상대적으로 린스의 소비량이 감소한 때문으로 풀이된다.

샴푸 · 린스 생산현황 (단위 : %)

구 분	1991		1992		1993	
	생산량	증감률	생산량	증감률	생산량	증감률
샴 푸	78,922,369	▽9.7	97,465,179	23.5	114,730,002	17.7
린 스	32,259,437	▽21.1	35,897,107	11.3	36,158,340	0.8
기능성샴푸	11,118,179	-	26,672,457	140	52,810,919	98

93년 기업별 생산실적을 보면, 샴푸는 럭키가 346억원을 생산, 1위를 차지했고 태평양이 299억원, 애경산업이 229억원으로 각각 2 · 3위를 차지했다.
린스는 럭키가 158억원을 생산해 1위, 태평양과 제일제당이 110억원과 42억원을 생산, 각각 2 · 3위를 기록했다.
이와함께 기능성샴푸는 93년 528억원을 생산, 92년(267억원)에 비해 98% 성장했고 92년은 91년(111억원)대비 무려 140% 신장할 정도로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현재 기능성 샴푸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에 맞게 세분화되고 있는데, 비듬방지용 샴푸를 비롯, 트리트먼트샴푸 · 코팅샴푸 · 향수샴푸 등이 시중에 출시되고 있다.
이밖에 정전기방지용 샴푸 · 지모방지샴푸 등이 조만간 샴푸 · 린스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.
이중에서도 비듬방지용 샴푸 및 트리트먼트샴푸가 소비자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으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.
한편, 각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기업제품들과 차별화한 독특한 신제품들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.
럭키는 갑각류에서 추출한 고분자 물질인 바이오 폴리머 성분을 함유한 「헤어퀸」샴푸 · 린스를 선보이고 있다.
태평양은 밤에만 전용으로 사용, 초강력 보습인자로 모발의 유연성과 탄력을 부여하는 「나이트리치」를 출시했다.
피어리스는 비듬방지 및 샴푸와 린스를 동시에 해결하는 「오프닝 더블코팅」샴푸를 내놓고 있으며 라미화장품은 자연허브향을 첨가한 「스프랜더」 샴푸를 선보이고 있다.

<화학저널 1994/7/11>